

'80세 소녀'의 詩 응원해 주세요

이대흠 시인, 김옥례 할머니 학생 시집 연내 발간

크라우드펀딩 반응 뜨거워...출판기념회도 예정

백색모시 바지적삼 정성다해 지었다오
어서입고 마실가요 어서입고 마실가요
등이마에 탐흐르면 모시적삼 다바리오
밀짚모자 사서쓰오 향부채는 여기있소
이웃사촌 부럽다네 동네사람 부럽다네
자네대의 숨씨인가 숨씨한번 그만일세
-김옥례 할머니의 '백모시'

81세의 할머니. 아니 한 여성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김옥례 할머니. 그녀는 이 땅의 수많은 할머니와 어머니들과 같은 전형적인 삶을 살았다. 못 배웠고, 가진 것 없어,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다. 물론 부모 복과 남편 복이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무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일찍 부친을 여의었다. 집안 생계를 위해 바다 일을 해야 했기에 공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시간에 그녀는 밭을 매야 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가 시를 쓰고 싶었다. 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시라는 것을 글적이면서는 가슴 속의 응어리가 풀렸다.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을 안으로 삭이면서도, 언제나 시를 쓰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 할머니의 자작시를 시집으로 묶어 내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화제다. 정중 출신 이대흠 시인이 할머니의 시집을 출간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모금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대흠 시인은 "할머니의 시가 근대시의 한 정점에 이르는 않았지만 그분의 가락과 말은 바다를 데리고 놓고, 이 땅의 산자락에 어울리기에 충분하다"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목포공공도서관의 시 창작교실에서 김옥례 할머니와 이대흠 시인.

모아 연말까지 시집 발간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인이 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14년 봄 목포공공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시창작교실에서였다. 수강생 중에 가장 연세가 많았던 할머니였지만 어느 교육생 못지 않게 진지하고 재능도 있었다고 기억한다.

목포 삼학도 인근에서 거주하는 할머니는 2년 전 시창작교실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뭉클했기 기뻐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첫 수업에 가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시를 썼는데 어설픈 시인들보다 시를 잘 썼어요. 수업기간에 무려 80여 편을 썼는데 할머니는 4음보 가락을 통해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기금적 할머니의 시를 고치거나 첨삭하지 않았다고 한다. 격려하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창작 교육이었다는 뜻이다.

시집 출간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소녀처럼 부끄러워했다. "시를 배울 때의 심정은 훌훌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그렇게 마음이 붕붕 뚫어지고 싶었다"며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시집을 낸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기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살아온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한다. 그녀의 결혼생활과 이후의 삶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흠 시인은 "구체적 행위 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해석 시집 발간 계획을 말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예상 외로 반응이 뜨거웠고 첫날 100만원가량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문형택 회가는 50만원을 입금해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시인은 "지인들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들과 의기투합해 올해 안에 시집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9333-7935. (계좌:농협 김영숙 605-12-17829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영란법 일부 혼선 '지나친 잣대' 지적도

경찰에 감사 딱 보낸 민원인 과태료 의뢰

황총리 법해석 체계적 검토 지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시행과 동시에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적인 법 적용은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이르고, 관계 부처간 협력 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흠 시인은 "구체적 행위 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해석

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적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조사 시간 편의를 봐준 경찰서 수사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며 시가 4만 5000원어치의 떡을 보낸 고소인에 대해 지난 18일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떡을 보낸 사람에 대해 경찰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떡을 보낸 사람은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이 민원인의 편의를 돌봐준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 표시는 보편적인 사회 상규로 볼 수 있는 데도 김영란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바뀐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여순사건 68년만에 화해·용서의 장

여수시 주관 첫 위령제

여수시가 여순사건 발생 68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로써 지역민과 함께 화해와 용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수시는 19일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회원, 이용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순사건 제68주기 희생자 위령제'를 열었다.

특히 이날 위령제에 천주교·불교·원불교 3개 종단에서도 함께 참여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김광년 전국유족회장, 서갑열 전남도 유족회장, 장준표 순천유족회장, 박장근 구례유족회장 등도 여수시가 처음으로 주관한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먼저 유족회에서 전통예로 추모제를 10여분 진행했다. 이후 원불교 이명련 교무, 천주교 신학 주임 신부, 불교 항일유 주지스님 등이 각 단



을 대표해 추모제를 지냈다. 이후 주철현 여수시장과 이용주 국회의원,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 황순경 유족회장의 추모사와 헌화,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주 시장은 추모사에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여순사건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추모 사업 진행과 특별법 제정에도 지역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 남구 '8647명 오카리나 합주' 기네스북 등재 시간강사도 교원 신분 부여한다

광주 남구민이 한마음으로 펼친 '오카리나 합주'가 단일 악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 연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광주 남구는 주민 8647명이 참가한 오카리나 대합주가 기네스 세계 기록을 관장하는 영국 기네스 월드레코드로부터 단일악기 최대 규모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네스 월드레코드는 관련 사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기록 인증서는 국제 우편으로 남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구는 지난달 1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

를 열었다. 합주 참가자들에게는 각각 식별번호를 부여했고, 인증기관에서 전자기기 식별번호를 인식했다.

문화전당 개관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오카리나 합주는 국토교통부 '창조지역 공모사업' 선정과 오카리나 음악도시 조성사업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기네스 기록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3081명이 참여해 진행된 오카리나 앙상블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년 이상 임용 원칙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가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정안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

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티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과건 등에 따른 대체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병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포자제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정확·문명·신선·자세한 안내를 위하여 드립니다.